



동창회 연락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사진 좌로부터 장완식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부원장, 안형규 치대학장, 서영규 동창회장, 양원식 동창회 총무부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현판식 거행 (2월18일)

양원식 교수실에 동창회 연락사무실 설치

재단법인 구성에 필요한 5,000만원 기금 조성에 총 매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지난 2월18일 교정과 양원식 교수실에 동창회 연락 사무실을 설치하고 동창간에 유대강화와 친목도모, 그리고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할것을 다짐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약 3,000만원으로 재단법인체 구성에 필요한 5,000만원 기금 조성에 총 매진하고 있다. 이 기금조성의 일환책으로 서울대 치대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1년 목표로 10만원의 적금에 가입, 소정의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데 개업가에서의 호응여하에 따라 1년 후면은 목표액인 5,000만의 기금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년도 우수졸업생인 최병택군에게 동창회장상 및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있는 서영규 회장.

재학중인 학생에게도 81년도 장학금이 전달, 학업 증진에 힘쓰도록 당부했다.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 동 환

서울·종로구충로 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연



80년도 우수졸업자 일동과 기념촬영(사진 좌로부터 이승우교무담당 학장보, 서영규 동창회장, 안형규 학장, 장완식 치과부원장, 김수경 학생담당 학장보)